징 검 다 리 어 린 이

#경기도 안양시 #인건비 지원

링컨은 책벌레

징검다리어린이는 2010년 9월에 동네 바자회를 통하여 주민들과 주최인 신광교회의 마음이 더해져 시작됐습니다. 모토는 '링컨은 책벌레' 였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딛고 세계적인 위인의 반열에 선 링컨의 유년기처럼 독서로 미래를 여는 동네 도서관이 되자는 뜻이었습니다. '링컨은 책벌레'라는 모토로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책과 가구 등을 모아서 설립하였습니다.

징검다리에 담긴 수많은 의미

징검다리어린이는 골목 인문학을 정기적으로 할 정도로 어린이인문학도서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라는 이름은 여럿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와 어른이 손을 잡고 건너는 징검다리가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와 마을이 손을 잡고 어린이를 도와주자'입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징검다리어린이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생겨난 징검다리어린이와 2017년의 디딤돌 모임에서 마을 학교의 원형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봅니다. 마을에 마치 책읽기와 상담을 위한 조그마한 학교가 도서관 안에 들어와 자리한 것과 같은 결과를 조금은 가져왔다고 봅니다. 감히 독서 치료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책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등의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얼굴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가면 누군가가 아이들과 주민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엔 정기적으로 독서 상담 활동가 선생님이 근무할 게 있을까 싶은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고 보니, 진작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런 활동가 선생님들과 같이 했어야 했다는 좋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 보니, 참 반면에 서글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마을 학교'같은 지속적인 환경을 그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 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징검다리에 가면 책을 통해 아이들 마음을 보듬어 주는 활동가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마을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징검다리의 일상에서 있었던 따스한 대화들이 생각납니다. 이벤트 식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특별한 일들은 아니지만, 마음 깊이 남았던 소소한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봉사를 계속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이런 질문을 어느 젊은 엄마가 건네셨습니다. 그동안의 일들과 2017년 긴급지원119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일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독서 관련 자격증이 하나 있어서, 인건비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선 방학 중이라도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징검다리어린이의 활동가가 도서관에 오면 언제나 앉아 있다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독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자리에 앉아 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호기심이 좋은 봉사자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도서관은 책만 빌려 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번엔 아이 손을 붙잡고 도서관에 오던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이의 책가방에 그려진 아이의 그림을 보고, 근무 중이던 독서상담 활동가께서 그 그림의 이면에 깔린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할머니와 이야기 하다 생긴 일입니다.

"우리 아이랑 그림책도 더 읽어 주시고, 독서상담도 해 주세요."이런 부탁을 할머니가 하십니다. 그 옆에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아이는 "저는 이제 꼭 도서관에 매일 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이런 말을 했답니다.

징검다리어린이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징검다리어린이는 마을 인문학 학교 형태를 지향합니다. 학교에서 시도하지 않은 세대 통합 인문학 강의 같은 형태를 연구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더 작은 작은도서관을 위한 협력 멘토링'과 더불어 기회가 되면, 마을 영화 축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도서관 안에 또 작은도서관으로 구역을 나누어 볼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섹트별로 아이들이 숨어 책을 읽기 좋은 자기들만의 공간을 의미 있게 꾸며 나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이지만, 게임 리터러시 개념을 갖고 게임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책을 통하여 접촉점을 찾아 가려는 시도를 준비 중입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잠시라도 주어진 것이 마치, 단비를 맞은 땅과도 같았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